

던 아버지의 안경도 있었다. 선우는 잠에 빠진 아버지를 돌아다보았다. 아버지가 웅크린 채 일정하게 숨을 내쉬었다.

안경은 보기보다 가벼웠다. 헐렁해서 곧 망가질 것만 같았다. 주홍색의 안경렌즈는 찰랑찰랑이 뻗은 듯 금긴 자국이 빼곡했다. 선우가 안경을 썼다. 안경이 콧잔등에 낮게 걸쳐졌다. 눈앞이 어지러웠다. 마루바닥에 뜬새나 벽에 뚫린 듯 자국까지 선명하게 보였다. 선우는 기우뚱거리며 거울 앞으로 걸어갔다. 거울 속에는 아버지와 흡사한 사람이 자신을 보고 있었다. 선우는 건넌방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의 등은 또렷했고 작고 왜소했다. 선우가 다시 기우뚱거리며 걸어가 살그머니 방문을 닫아주었다. 돌아서서 파란 하늘로 시선을 던졌을 때 어지러움이 말끔히 사라졌다. 아버지의 안경은 원래 자신의 것이듯 편했다. 문 뒤로 아버지의 코고는 소리가 가늘게 들려왔다.

안경은 아버지가 식사를 할 때마다 허얇게 김이 서리다가 맑아지곤 했다. 선우는 아버지에게 안경이 낄았으니 새로 맞추자고 했다. 아버지는 잘 보이는데 뭐가 문제냐고 거절했다. 선우는 수저를 내려놓고 또 말했다. 아버지의 얼굴에 당혹스러움과 분노가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아버지가 밥을 한입 물어넣고 우물거렸다. 선우는 아버지의 얼굴에 스친 분노가 어떤 것

엄마가 떠난 뒤, 아버지의 해수 기침은 더 잦았다.

숨이 멎을 것 같은 기침 소리에 선우는 얼어붙는 것 같았다.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겁이 났다.

인지 짐작되지 않았다. 아버지는 평소답지 않게 급하게 밥을 떠 넣었다. 빠르게 식사를 했지만 다 먹지는 않았다. 선우는 한 번 더 말을 할까 했지만 그만두었다. 아버지의 단조로운 삶에 끼어들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장묘사로서의 일 외에 선산을 관리하거나 장마가 지면 먹을 가는 일이 전부였으니까.

아버지는 간혹 숙취 때문에 일을 나가지 못했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 어느 날이었다. 오후로 접어들 때 아버지가 필묵함을 열었다. 한지로 위는 풀기 없는 책이 바람결에 파닥거렸다. 넘겨질듯 하다가 내려앉곤 하는 것을 문진으로 놓았다. 오후 햇빛이 마루 중앙까지 들어왔지만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아버지의 재색면 티셔츠가 진해지며 등에 작 달라붙었다. 아버지는 간간히 자세를 고쳐 앉았다. 말장던 물이 탁해지고 붉은 죽처럼 변해갔다. 아버지가 선우를 돌아보며 중얼거렸다. "나 여덟 살에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 뒤로 산에서 살다시피 했다." 말을 멈추고 콜럭, 기침을 한 번 뱉었다. 그러곤 오른 손을 허공에 댔었다. "막막했다. 어찌 살아왔나 신기하다..., 신기해."

"..."

아버지가 먹을 들어 밀면을 보고나서 다시 베투에 놓였다. 먹을 흰 손을 들릴 때마다 묵 향이 물씬 풍겼다. "네 할아버지는 병석에 누웠을 때에도 글을 썼다. 나는 먹을 가는 일이 지겨웠다."

아버지는 먹물 묻은 손가락을 벽에 대고 쓱쓱 닦았는데 그게 꼭 풀잎 같더라고

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조금 침울했다. 표정은 여전히 할 말이 많아 보였다. 아버지가 베투에 물을 좀 더 따랐다. 아버지의 손에 먹물이 튀었다. 글씨는 쓰지 않았다. 뭔가 현실에서 몇 발자국 떨어진 느낌, 아버지는 그랬다. 스스로가 고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빈 구멍들 속에 갇혀버린 것인지 몰랐다. 엄마가 떠나고 난 뒤에도 아버지는 어느 때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아버지가 아침밥을 먹다 말고 일어났다. 작업복과 세면도구를 챙기는 모습이 어쩐지 먼지 묻지처럼 느껴졌다. 가방을 꾸리고 나서 마루 끝에 필묵함을 열었다가 닫았다. 해수기침을 하다가 멈췄다. 아버지가 숨을 거칠게 내뿔으며 모자를 썼다. 가볍게 걸어 밖으로 나갔다. 선우가 뒤를 따랐다. 아버지가 대문 앞에서 몸을 돌렸다. 주문이 많아 두 주일은 걸릴 거라고 말했다. 젊은 사람들이 주고객이라고 했다. 장마 전에 끝내지 못한 일에 새로 주문받은 일이 있어 일감이 밀렸다는 것이다. 선우는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았다. 묘지를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산신승들이 파헤치고 구멍을 낸다고 했다. 그러니까 차라리 시멘트로 단단하게 덮어야 한다는 거였다. 물론 시멘트를 바른 다음에는 초록색 페인트를 칠하거나 인조잔디를 씌우는데 그것은 고객의 선택에

달라다고 했다. 선우는 아버지의 그늘린 얼굴을 찬찬히 바라냈다. "엄마가 떠난 뒤, 아버지의 해수 기침은 더 잦았다. 숨이 멎을 것 같은 기침 소리에 선우는 얼어붙는 것 같았다.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겁이 났다. 아버지는 날이 갈수록 수척해져갔다. 자주 누웠으나 힘이 나면 고향에 갔고, 그러다 틈이 생기면 습관처럼 먹을 갈았다. 아버지는 그렇게 멀지도 가깝지도 않는 자리에 있었다. 아버지가 차에 올랐을 때 선우가 말했다. "우리 선산도 시멘트로 쳐버려요."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 아버지가 불같이 역정을 냈다. "앞으로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가 쓸데없는 소리 말라며 차문을 빵, 닫았다. 차는 집만 끄트머리까지 흔들렸다. 낡은 트럭이 달달거리며 골목 끝으로 멀어져갔다. 아버지의 차가 골목 어귀를 돌아 자취를 감추었다. 골목은 이상하리만큼 넓고 조용했다. 선우는 몸을 돌렸다. 아버지의 시선은 늘 먼데 있었다. 엄마가 바짝 앞에서 말을 할 때도, 선우가 다가갈 때에도 아버지는 먼 산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눈동자는 어딘가 모르게 텅 빈 것 같았고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는 것도 같았다. 그런 아버지가 화를 내며 말하는 거 한 가지 있었다. 방바닥이 뜨겁다는 것이었다. 발이 났 거 같으니 보일러를 꺼라, 면서 집안에 보일러 계기판을 죄다 꺼버리곤 했다. 하는 수 없이 미지근하게나마 보일러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럴 때에도 아버지는 옷 앞섶을 풀어 찢으며 얼굴이 빨개지도록 고향을 쳤다. 발이 났 거 같고, 숨이 막혀 못살겠다고 했다. 엄마는 추위

를 견디지 못하고 여러 번의 옷을 겹쳐 입었으나 한 겨울의 냉기를 물리칠 수 없었다. 엄마는 여름철을 제외하고 나머지 계절에는 늘 감기에 시달렸다. 엄마의 전화로 제각각이던 가족이 더욱 크게 조각나고 있음을 알았다. 선우는 자신이 부속물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선우는 계획한 대로 묘소 앞 가장자리에 텐트부터 쳤다. 애기단풍나무가 달리 않도록 조심했다. 지지대를 텐트의 외피에 끼워서 땅에 박았다. 땅에 지지대를 박을 때

선우는 쥐고 있던 먹을 제자리에 꽂았다.

마땅히 있어야 할 제 집을 찾은 듯 한 안정감,

그것은 어떤 완벽함이었다.

마다 가슴이 요동쳤다. 해가 질 때쯤 텐트가 제법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선우의 얼굴에 만족스런 빛이 어렸다. 말았다. 그때 서야 묘소 앞으로 가 절을 했다. 선우는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하고 계속 불렀다. 부르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할아버지, 할머니를 주문 외듯 불렀다. 선우는 봉분 앞으로 벌렁뿔 누웠다. 보세요, 할아버지 손자입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선우가 일어나 할아버지를 안았다. 일어나 할머니를 안았다. 할머니, 알았죠, 할머니. 알았죠. 선우가 손바닥으로 잔디를 쓸었다. 손이 씩뚱대서 보니 손바닥에 피가 흐르고 있었다. 선우는 배인 자리를 셔츠 모서리로 꼭꼭 눌러 핏물을 닦았다. 선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서늘한 바람이 텐트 깃을 흔들었다. 선우는 긴장과 걱정이 뒤섞여 몸을 뒤척거렸다. 쪽독새와 지빠귀의 울음소리가 섞여들었고 얼마 후 그 소리는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눈을 떴을 땐, 희몽하게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씨였다. 선우는 마음이 점점 조금해졌다. 일의 순서를 계산했다. 한탄을 피하려면 서둘러야 했다. 채일 먼저, 봉분에서 잔디를 걷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연장을 충분했다. 선우는 소변이 마려워 밖으로 나왔다. 단풍나무를 지나 숲으로 들어갔다. 수풀이 경계되는 지점에서 오줌을 닦다. 밤새 고였던 오줌이 풀잎을 적었다. 선우가 고개를 들었다. 풀이 무성하게 자란 낮은 무덤이 눈에 띄었다. 난데없이 스삭 소리가 나며 봉분 위의 풀잎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띠끌 사이로 초록색 뱀 한 마리가 미끄러지듯 지나고 있었다. 뱀은 구부속으로 재빠르게 들어갔다. 소변이 웅푹 멈추었다가 다시 쏟아졌다. 뱀은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었다. 몸이 부르르 떨렸다. 선우는 급히 뒤 돌아섰다. 자루에서 연장을 꺼냈다. 그러다 용수철을 누르며 모래를 붓고 샴으로 씻기 시작했다. 샴지루가 떨렸다. 선우는 여러 번 샴을 놓쳤다. 맘에 췌는 눈이 쓰렸고 셔츠는 젖어 몸에 엉겨 붙었다. 반죽이 적당하게 되었을 때 걸음을 밟고 허기가 느껴졌다. 선우는 배낭에서 미지근한 물과 빵을 꺼냈다. 빵은 수분이 말라 부슬부슬해서 맛을 느낄 수 없었다. 선우는 그것들을 도로 배낭에 넣어버렸다. 정오가 되려면 아직 세 시간은 남아 있다. 인조잔디를 재단하기 위해 단풍나무 그늘로 잔디 묶음을 끌고 왔다. 장갑을 끼고 노끈을 풀 때였다.

언덕 아래서 남자의 고함소리가 났다.

노인이 손사래를 치며 다급히 걸어오다 넘어졌다. 노인은 이내 일어나 달리 듯 바삐 걸었다. 선우는 멈춰섰다. 노인은 가까이 다가와서 숨을 고르느라 고��스러운 듯 눈을 희번덕였다. 선우를 향해 허공에서 팔을 휘둘렀다.

“지금 뭘 하는 것이여?”
간신히 숨을 고른 노인의 첫 마디였다.
“묘를 단단하게 하려고요.”
선우는 거들떠보고 싶지 않았으나 마음과는 달리 공손하게 답했다.

“그리고 보니 어제 길가에서 본 청년이 구면, 저절로 어떻게 한다는 것이여?”
노인의 말에서 역점이 들어왔다. 선우의 기억이 맞다면 노인의 이름은 수경이었다. 산도통이에 살펴 아버지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다. 아버지가 일을 나서며 전화를 했던 모양이었다. 수경 노인이 선우를 올려다보았다.

“우리 가족이 폼비박산 났어요.”
“폼비박산이러니. 무슨 소릴 하는 것이야. 당장 그만 두게.”

노인은 다짜고짜 선우의 말을 들으려하지 않았다. 노인은 연장을 주워 포대 자루에 쑤셔 넣었다. 선우는 노인의 손을 잡았다. 노인이 사냥개 노려보았다.
“아이고. 자네, 이러면 안 되네.”
노인은 표정을 바꾸고 울상을 지었다.
“우리 집안일이에요. 참견마세요.”
노인은 힘없이 손을 늘어뜨렸다.
“안 되네. 이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노인의 목소리는 완강했다. 선우는 노인의 얼굴을 쓰아보았다. 한참을 보고 있지 않아 아버지와 닮았다. 이마선이나 눈매가 아버지와 흡사했다. 다른 게 있다면 노인은 안경을 쓰지 않았을 뿐이었다. 늘어진 노인의 턱에서 탐인지 눈물인지 모를 무언가가 떨어졌다.

“아저씨가 모르는 게 있어요.”
“자네도 모르는 것이 있네.”
“일해야 돼요. 저리가세요.”
선우는 노인의 허리를 밀었다.
“큰일이구면, 자네 아버지가 알면 까무러칠 걸세.”
“엄마까지 나갔는데 무슨 일이 더 있었어요. 비키세요.”
“...”

노인은 허참, 허참 기가 차다는 듯 하늘을 바라냈다.
“연락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노인이 여하튼 이젠 안 돼. 해가를 박듯 말을 던지고 돌아섰다. 내려갔다. 말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다. 노인이 주저하는 발걸음으로 절경이와 잡초를 헤치며 오솔길을 따라 내려갔다. 구부정한 어깨가 탈골된 것처럼 힘없이 보였다.
선우가 나무 그늘에 주저앉았다. 그림자가 조금씩 길게 늘어졌다. 선우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연장 자루를 쏟았다. 빠진 연장은 없는지 살피면서 샴을 들었다. 샴을 이용해 일을 해보진 않았지만 그다지 힘들 것 같지 않아보였다. 비온 뒤라서 땅이 촉촉하니가 더 손쉬운 거라고 생각하며 묘에 샴을 댔다. 샴날에 발을 올려 꼭 눌렀다.

샴날이 뭉개에 반했다. 선우는 샴을 옆에 놓고 다시 발로 눌렀다. 마찬가지였다. 샴 끝은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다.

선우가 샴을 뉘어 잔디를 밀었다. 샴날에 단단한 것이 느껴졌다. 샴으로 잔디 위를 찍어보았다. 이상했다. 샴은 번번이 튕기듯 했다. 믿을 수 없었다. 샴을 놓고 손으로 잔디를 짓찧었다. 흙 속으로 잔디 뿌리가 엉켜 쉽게 않았다. 흙냄새가 물씬 풍겼다. 땅이 봉분위로 비가 오듯 떨어졌다. 다급한 선우의 손가락 끝으로 단단한 느낌이 전해왔다. 노인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의식속으로 파고들었다.

선우는 벗어둔 안경을 찾아 썼다. 단단한 정제의 그것이 모습을 드러냈다. 샴을 들어 잔디를 깎다. 더 더 더. 잔디가 밀려난 자리는 온통 까맣다. 선우는 두 손으로 미친 듯이 흙을 쓸어냈다. 돌무덤, 검은 돌무덤이었다. 선우가 돌 하나를 흔들려 뻗다. 그건 너무나도 익숙한 몽당 먹이었다. 흙이 묻는 먹 위로 물기가 툭, 떨어졌다. 선우는 먹을 쥐고 앞으로 아버지, 아버지, 하고 아버지를 불렀다. 해님이 속에서 선우는 오래도록 아버지를 불렀다.

애기단풍나무의 그림자가 선우의 발끝에 닿았다. 먹은 잠시 햇빛을 받고 고고한 빛을 냈다. 선우는 쥐고 있던 먹을 제자리에 꽂았다. 마땅히 있어야 할 제 집을 찾은 듯 한 안정감, 그것은 어떤 완벽함이었다. 선우는 잔디를 덮고 손바닥에 힘을 주어 세심하게 눌러주었다. 온몸이 맘에 흠뻑 젖었다.

단풍나무가 어스름에 빠지자 몸이 조금씩 말라갔다. 선우는 배낭에서 여벌의 옷을 찾아 들고 산언덕을 내려갔다. 농수로에 가득 찬 물이 날썰기 흘렀다. 선우는 들안을 가로지르는 농수로 가에 서서 몸을 닦았다. 목은 때가 벗겨지고 몸이 가벼워

아버지 안에 작은 아이는 그렇게 살았던 것이었다.

얼어붙은 땅에 뿌리라는 운명의 축수를 더 길게 뻗어 내리는

애기단풍나무처럼 아버지는 그토록 약삭같았다.

지는 느낌이 들 때까지 오랫동안 씻었다. 그러곤 일찌감치 텐트 속으로 들어가 누웠다. 반딧불이가 날고 쪽쪽쪽 쪽쪽새가 울고, 스이익이 지빠귀도 울어댔다. 노인이 머뭇다 큰 애기단풍나무는 밤바람을 타는지 스삭스삭 소리를 냈다. 선우는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담았다.

가 모른다는 것이 무엇일까. 눈을 뜨자마자 수경 노인의 말이 생각났다. 방금 전에 들은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졌다. 선우는 묘소를 한 바퀴 돌았다. 잔디가 고르게 자랐고 잡초 하나 없었다. 선우는 개어 놓았던 반죽을 마태 자루에 넣어 담았다. 연장을 자루에 넣고 텐트로 걸음을 옮길 때 노인이 언덕을 올라왔다. 가까이 다가와 주변을 둘러보며 고개를 주억거렸다. 그러더니 노인은 가슴에 옷자락을 펴며 단풍나무 아래 털썩 앉았다. 한 손으로 이마를 훑더니 눈을 꼭 감았다가 떴다.

“자네도 알아야했기에....., 오래된 일일세. 동지가 막 지나 눈이 많이 온 날이었네. 동상이 걸려 손등에서 피가 터지고 딱지가 또 벌어지고 한 지독한 겨울이었지.”
노인의 시선은 먼데 가 있었다. 방에서

도 얼음이 얼 만큼 추위가 말도 못했어. 자네 아버지는 몸이 약했네. 오죽했으면 자네 일어나 부엌으로 갔을까. 야궁이에 불을 지켰는데 쭈그리고 앉아서 조는데 그 사이에 불길이 번진 거지. 자네 아버지가 불이야, 소리를 치고 발을 동동 굴렀지만 동네는 잠든가 조용했지. 병환 중이던 자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불속에서 나오질 못했네. 노인이 잠시 침묵했다. 집을 쫓다 미만 남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빈 상여를 내고 무덤을 만들었다고 했다. 아버지는 사철 무덤 옆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그때가 되면 남의 집 야궁이에서 재를 긁어다가 묘지에 뿌렸다는 것이었다. 고향을 뜨고 일마나 되었을까, 여기 오면 종일 뭘 하나 했지. 노인은 말을 더 잊지 않았다. 선우는 머릿속이 아득해졌다.

아버지 안에 작은 아이는 그렇게 살았던 것이었다. 세상을 이겨나가기 위한 몸부림이구나. 얼어붙은 땅에 뿌리라는 운명의 축수를 더 길게 뻗어 내리는 애기단풍나무처럼 아버지는 그토록 약삭같았다. 선우는 흐릿해지는 시야를 바라보며 손등으로 눈시울을 문질렀다. 노인이 가리앉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잘 생각했네. 잘했어. 그리고는 일어나 허정허정 언덕을 내려갔다.

단 풍나무 그림자가 선우 위로 길게 달라붙었다. 선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텐트를 정리하고 집을 옮겨 차에 실었다. 차가 기우뚱거리며 농로를 지났다. 마을 어귀에 선 느티나무를 벗어나자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다. 빼기덕 거린 대문조차 문해버린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듯했다. 마루 끝에는 암적색의 필묵함이 그대로 놓여있었다. 상자 표면이 지저분했다. 선우는 목에 힘을 주고 이를 앙다물었다. 눈꺼풀이 떨려왔다. 눈언저리를 누르며 집을 나섰다. 거리는 차츰 무채

색으로 변해갔다. 필방에 다다랐을 때는 이미 해거름이었다. 문을 잡아당기자 풍경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다. 아주머니가 문발을 걷고 나왔다. 빗자루만 찾아볼 수 없는 장벽만 얼굴이었다. 주인은 중앙진 열대로 다가왔다. 그녀는 유리로 만들어진 진열대 위에 놓인 먼지떨이를 세워 턱을 고였다. 그러곤 선우를 뻗히 바라보았다. 내부는 서늘하고 정갈했다. 진열대 맨 위 선반에 먹과 붓이 가득했다. 선우는 눈에 익은 먹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절로 포장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아주머니가 먼지떨이를 놓아두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포장을 했다. 그러면서 혼잣말을 했다. 똑같은, 똑같은. 선우는 그게 무슨 말인지 궁금했으나 묻지 않았다. 돈을 지불하고 종이방을 받았다. 손에 무게가 느껴지면서 마음으로는 부드러운 뭉가가 가득 차올랐다. 선우는 어둡해진 거리를 걸었다. 아버지의 낡은 안경도 이제는 바뀔아한다고 생각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선우는 마당으로 나가 창고와 대문 사이를 오갔다. 구름 탄인지 마당에 깔린 연주황색 타일이 검어졌다가 제 색을 드러내곤 했다. 선우는 가만히 빨랫줄을 만져보았다. 담장 밖 멀리에서 개 짖는 소리가 어둠을 흔들었다. <끝>

광주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부문 당선 소감

더운 날 바람, 추운 날 온기되는 글 쓰고 싶다

당선자 송은유씨

- ▲고흥 출생
- ▲광주대 문예창작학과 석사과정 재학
- ▲전남대학교 근무 중

아침부터 지쳐있었다. 출근길에 작은아이와 충돌 때문이었다. 여간해서는 화내는 일이 없던 아이인데 사소한 대화중에 별력 화를 내더니 차에서 내려버렸다. 심어 분을 달려 사무실로 오는 동안, 막연한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닌가, 또 생각했다. 생활에 균열이 생기고 틈이 났구나. 아이가 뛰어가던 뒷모습이 지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발걸음은 이제, 출발지에서 너무나 멀리 와버린 느낌이다. 쌀길도 없는 오직 외로운 거다. 이 길을 걸으며 주저앉기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다.

그런 때마다 문순태, 신덕용, 이기호, 임환보, 은미희 선생님의 격려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또한 가까이에서 글 발을 일구는 문우들이 있어 항상 마음

든든했다. 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개 속에서 해내는 저의 손을 잡아 주신 심사위원님께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 길 지치지 않고 가라는 격려로 알겠다. 소외되고 우울한 이웃에게 웃음과 위안이 되겠다.

더울 땀 시원한 바람이며 추운 날엔 한기를 막아줄 수 있는 글을 쓰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 종종길을 치지 않고 내 안에 난 길을 그저 걸어가겠다.

끝으로, 여전히 소녀 같으신 엄마와 무한 신뢰와 사랑으로 지켜봐 주고 응원 해주신 나의 딸 혜원과 다원에게 늘 미안하고 감사하다. 틈이 생기지 않도록 더 사랑하겠다. 그리고 두 남자, 아버지와 남편께 온전히 이 기쁨의 날을 바친다.

단편소설 부문 심사평

주인공 내면 간결하게 이끄는 묘사 돋보여

함정임 작가

본심에 오른 작품은 ‘먹을 잇다’ 외 4편이었다. 이 작품들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현실의 문제, 기업 사회의 치부를 드러내는 적폐 청산 문제, 인간의 유한성과 기억에 대한 도전적 재구성, 삶 의 연륜을 투영시킨 장인(匠人)의 세계를 다루었으나, 대부분 소설의 기본기인 문장 면에서 미흡함을 노출시켜 아쉬움이 컸다.

신인의 치열하면서도 안정적인 문장, 인간과 세계를 대하는 태도와 문제의식, 단편 소설의 속성과 규모에 알맞은 서사적인 필력, 주제 관철력을 평가의 중심으로 두었다. 이들을 총칭한 작품은 ‘송송의 미래’와 ‘먹을 잇다’였다. 전자는 쫓ult형 경쟁 과정과 이후 기업 사회에 만연한 문화를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있으나, 일상 언어가 그대로 기술되어 있고, 그것을 작

기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한계로 작용했다.

‘먹을 잇다’의 특장은 안정적인 서사의 흐름 속에 내면의 파동을 외부로 간결하게 이끄는 묘사와 운용에 있다. 이 작품에서 서사의 매개 장치는 ‘먹’이고, 핵심 사건의 아버지의 울음과 먹 길기, 그리고 글씨 쓰기이다. 화자는 우는 아버, 먹을 가는 아버와 마주하고 산다. 부모의 죽음에 죄의식을 안고 살아가는 장묘사 아버의 부채감이 자식인 화자에게 이행되면서 해소되는 아이러니한 과정을 군더더기 없는 대화의 운용과 단락 마다 장면을 생생하게는 문장력으로 이끌고 있어 당선작으로 선택했다.

모든 응모자들에게 격려의 마음을 전하고, 수상자에게 축하와 함께 지속적인 정진을 바란다.